

자동차업계, 신차로 '코로나 불황' 뚫는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완성차 업계가 신차를 출시하면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중국산 부품 공급 차질 등으로 공장가동을 멈추는 '셧다운' 충격과 소비위축에 따른 판매감소 등 악조건 속에서 신차 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 30일 기아차에 따르면 지난 17일 정식 출시한 준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쏘렌토 4세대 모델은 자동차업계의 신차 경쟁에서 선방하고 있다. 4세대 쏘렌토는 기아차가 6년 만에 새롭게 단장해 선보이는 주력 모델이다. '강인함'과 '세련미'를 콘셉트로 한 혁신적인 디자인에 대형 SUV 수준의 공간 활용성과 차원 높은 주행성능, 첨단수준의 안전·편의사양 등 완전히 새로운 모델로 재탄생했다는 게 기아차의 설명이다. 쏘렌토는 코로나19 사태에 출시된 탓에 업계의 우려 속에서도 지난달 20일부터 영업일 기준 18일 동안 2만6368대가 사전계약되면서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기아차 4세대 쏘렌토 18일간 사전 계약 2만6000대 '돌풍' 현대차 '올 뉴 아반떼' 계약 첫날 1만대·제네시스 GV80 출격 한국지엠 트레일블레이저·르노삼성 XM3도 인기몰이

지난해 쏘렌토의 월 평균 판매대수 4360대와 비교하면 6개월 상당의 판매량이 사전계약된 것으로, 신형 쏘렌토 디젤 단일 모델도 1만3491대의 사전계약을 이뤄내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현대차 역시 5년 만에 완전변경된 모습으로 새롭게 출시된 7세대 아반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신형 '올 뉴 아반떼'는 파격적인 디자인과 넓어진 실내 공간으로 출시 직후부터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특히 아반떼는 지난 25일부터 신차 사전계약을 시작해 하루 만에 1만58대나 기록했다. 지난해 아반떼 한 달 평균 판매 대수인 5175대의 두 배 수준

이며, 2015년 나온 6세대 아반떼의 첫날 사전계약 규모 1149대에 비해선 9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1990년 1세대 아반떼(엘란트라)가 나온 이래 최대 기록이자 코로나19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낸 성과여서 의미가 있다는 게 현대차의 설명이다. 앞서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도 올해 초 첫 SUV 모델인 GV80을 출시한 데 이어 가솔린 모델까지 출시하면서 판매량 상승세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GV80은 출시 후 지난달까지 누적 계약이 2만 1000대를 넘어서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출시

2~3개월 만에 올해 전체 판매 목표인 2만4000대 달성을 마쳤다. 이밖에 한국지엠(GM)과 르노삼성이 야심차게 출시한 신형차도 중 소형 SUV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한국지엠이 지난 1월 출시한 중 소형 SUV 트레일블레이저도 지금까지 사전계약이 6000대를 넘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순항하고 있다. 또 르노삼성의 소형 SUV 신차 XM3도 쿠팡형 디자인에 가격 대비 성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지난달 21일 사전계약 이후 한 달도 안돼 1만 6000대를 넘어섰다. 르노삼성의 지난해 2월 승용부문 판매량이 4826대, 3월 6344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신차 XM3 단 한 모델이 3개월 판매량을 한달만에 달성한 셈으로,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자동차업계가 신차 출시로 활로를 찾고 있는 모습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기아차 '4세대 쏘렌토'



현대차 '올 뉴 아반떼'

금호타이어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본상

금호타이어(대표 전대진)는 30일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0'(Red Dot Design Award 2020) 운송기기 부문에서 본상(Winner)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의 iF(International Forum Design), 미국의 IDEA(International Design Excellence Award)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힌다. 수상작은 독일과 싱가포르 레드닷 디자인 뮤지엄(Red Dot Design Museum)에 1년간 전시된다. 수상 제품인 '솔루스(SOLUS) 4S HA 32'는 유럽 도로 조건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사계절 타이어로 모든 계절에 걸쳐 안정적인 주행 및 제동 성능을 보장하는 고성능 사계절용 제품이다. '솔루스 HA32'는 첨단 신소재 컴파운드와 V자형 패턴을 적용해 젖은 노면과 마른 노면 주행 성능을 극대화한 제품으로, 기존 제품대비 15% 이상 제동 성능을 향상시켰다. 또 3차원 입체 사이프(Interlocking Sipe) 등 최적화된 패턴 설계를 통해 빗길, 눈길 뿐만 아니라 빙판이 살짝 녹은 슬러시 노면까지 어떤 계절에도 대응 가능한 제동과 뛰어난 핸들링 성능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타이어 옆면인 사이드월(Sidewall)에는 제품의 특성을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계절 아이콘을 적용했고, 금호타이어가 국내 최초로 선보였던 홀로그램(Hologram) 기법을 적용해 고급스럽고 세련된 외관디자인을 구현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날렵하고 멋진 제네시스 'The All-new G80' 출시

프리액티브 세이프티 시트 탑재

제네시스 브랜드는 30일 온라인으로 출시행사를 갖고 G80의 완전 변경 모델 'The All-new G80' (사진)을 출시했다. 제네시스에 따르면 G80 완전변경 모델은 가솔린 2.5와 3.5 터보, 디젤 2.2 엔진으로 구성됐다. 가격은 개별소비세 1.5% 기준 가솔린 2.5는 5247만원, 3.5 터보는 5907만원부터, 디젤 2.2는 5497만원부터다. 가솔린 3.5 터보 모델은 최고출력 380마력(PS), 최대토크 54.0kgf·m 등 동력 성능이 동급 최고 수준이고 복합연비는 2륜 19인치 타이어 기준 9.2km/l이다. 신형 G80는 외양은 우아하면서 쿠팡처럼 날렵하다. 제네시스 3세대 후륜구동 기반 플랫폼으로, 차체를 낮춰 무게중심이 아래로 가도록 설계됐다. 차량 무게를 125kg 줄이고 초고강도 강판 비율을 높여서 민첩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앞부분에는 제네시스 디자인 상징인 크레스트(방패모양) 그릴과 '두 줄' 모양 쿼드램프(4개 램프)가 있다. 옆부분에는 쿼드램프에서 시작돼 뒤로 갈수록 낮게 이어지는 파라볼릭 라인(포물선)이 우아한 느낌을 준다. 고급 세단답게 첨단 안전·편의 사양을 대거 탑재했다. 충돌이나 급제동 예상시 동승석 등받이를 당겨 안전한 자세로 조정하는 프리액티브 세이프티

시트(PSS)와 에어백 10개, 평행·직각 주차 지원, 제네시스 카페이 등이 있다. 가솔린 모델에는 전방 카메라 등으로 노면 정보를 먼저 파악하고 서스펜션을 미리 제어하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적용됐다. 그밖에 차로 변경 보조, 운전 스타일 연동, 지능형 전조등 등 다양한 주행보조 기술이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현대차 미래차 기술 경쟁력 강화 인재 발굴 나서

연구개발본부 신입·경력 상시 채용

현대자동차가 미래차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인재 발굴에 나섰다. 현대차는 30일 현대차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수소연료전지 ▲배터리 ▲차량 기본성능 등 연구개발본부 내 다양한 분야의 신입 및 경력사원 상시 채용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입·경력사원 모집으로 자동차산업의 빠른 변화 속에서 연구개발부문의 우수 인재를 공격적으로 채용해 미래차에 대한 기술 주도권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는 게 현대차의 설명이다. 모집 직무는 총 62개다. ▲수소연료전지 ▲차량 아키텍처 ▲전동화·사시·바디시스템 ▲전자제어 ▲상용차개발 ▲제품기획 (PM) ▲전략·지원 등 신입사원 23개 직무를 비롯해 ▲수소연료전지·배터리·전동화·자율주행 시스템 기술 개발 ▲첨단소재 및 친환경 에너지 기술 개발 ▲소프트웨어 제어 ▲차량보안 ▲해석 ▲사용

자 경험(UX) ▲사업기획/개발 ▲특허개발 ▲기술기획 ▲디자인 전략·홍보 등 경력사원 39개 직무다. 모집 대상은 신입사원의 경우 국내의 학사 및 석사 학위 취득(예정)자로, 경력사원은 직무별 관련 경력 보유자 및 박사 학위 취득(예정)자다. 각 분야별 자격요건과 수검직무 등 세부사항은 현대차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집 일정은 신입사원은 이월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경력사원은 이월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서류를 접수하며, 연료전지와 차세대 배터리 분야는 일부 직무의 경우 접수기간에 대한 별도의 제한 없이 각 공고에 따라 상시 지원할 수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상시 채용은 미래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 확보를 통해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연구개발부문(R&D) 우수 인재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Modern

모던 스타일



Classic

클래식 스타일



Mediterranean Sea

지중해 스타일



